

## 정길상(부산상고 53회 동기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정길상
2. 면담자: 강희영
3. 촬영자: 이대희
4. 구술일자: 2011년 8월 31일
5. 구술장소: 부산 금정구 구술자 사무실
6. 구술분량: 09분 42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고교시절의 가난과 교우관계

구술자 : 일(1)학년과 이(2)학년까지는 같은 반 아니었어요.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노무현,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‘참,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.’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볼 때에 공부하는 모습은 극히 보기가 힘들었다, 그러나 시험을 쳤을 때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깐 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. 그러고 건강이 아주 좋은 학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.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그 담백한 친구다,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, 네. 현실에 충실한 마 그런 학생이었다.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삼(3)학년 때에 같은 반이었습니다. 네.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, 시험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만났던가 아니면은 좀 시원한 곳을 찾아서 그늘 밑에서 만난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해서 안 되는, 그런 어떤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.

면담자 : 당시에 봉하마을 댁에도 가보셨나요?

구술자 : 예. 한번 가봤습니다. 저도 친구들과 같이 갔다가 마루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. 주로 일(1)년 아니면 이(2)년에 한번 씩은 초가집은 그 우(위)에 거를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이을 걸 짜가지고 이어줘야 됩니다. 갈아줘야 됩니다.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, 네. 그걸 못하니까 집이 바래기도 하고, 네. 한 군데는 폭 꺼지기도 하고.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나는 마루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마당에 앉을 만한 데를 찾아서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. 그 정도로, 촌에서 인제 그 정도로 살았으니까. 그 이상 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. 가난한 집에 아들이다. 농꾼의 아들이다. 물론 고향이 김해이기 때문에(때문에) 대부분 다 농꾼

의 아들이죠. 그렇지만은 저렇게까지 가정환경이 어려웠다는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. 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거의 몰랐습니다. 가난이라는 그런 표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니다. 밥을 뭐 묵다시피 그렇게 굶었으니까. 체질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입니다. 네. 그리고 굉장히 쾌활했구요. 음. 얼굴에 어두운 기색은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, 학교 다닐 때에. 늘 밝은 얼굴이었고. 그 어떤 가난한 속에서 자라나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거나 부정적으로 보잖습니까?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.

고등학교 삼(3)학년 아마 가을이죠. 그때 인제 코스모스가 확 피어가지고 있을 때니까. 그때 그 이제 영양빵이라는 게 있어요. 예. 영양빵이 있는데 그게 백(100)환 했습니다. 백 원이 아니고 백환. 화폐단위가 백환이었습니다. 비니루 봉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한 봉지에 백환인데 세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팔빵입니다. 팔빵인데 업체에서 이제 학교에 납품하는 거죠. 맛이 있어요.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이 있습니다. 예. 우리는 뭐 보리밥으로 커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얀 쌀밥 먹으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정도로. 보리쌀이 좀 섞여야 구수한 맛이 나고 그랬습니다. 그런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 팔빵 먹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. 네. 꿀맛이에요. 그것도 전교생들 보며는 드물어요, 그걸 사먹는다는 게. 그러니 그렇게 힘든, 힘든 한 가정, 가정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으니까. 근데 인자 한 날은 이제 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‘공부하러 들어가자’ 이래가지고 책 들고 코스모스 밭에 들어갔는데. 우리가 늘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. 있는데 선생님들은 들어오면 우리를 못 찾아요.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늘 담배피우고 그러거든요. 못 찾습니다. 숨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. 밖에서 보면은 연기가 여기저기에서 저 옹기장, 그 옹기 굽는데 보며는 연기 올라오지 않습니까? 네 명, 다섯 명이서 담배 한번 피와 보십쇼. 연기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보고 들어오는데 없어요, 들어오면. 소리가 나니까 삭 숨어버리면 못 찾습니다.

근데 ‘먼저 들어가 있어라. 내 잠깐 한군데 들렀다 올께’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가 늘 같이 놀던 그 아지트 그(거기) 가서 있는데 좀 있으니까 그냥 혈레벌떡 하면서 들어왔어요. 근데 뭐 봉지를 하나 턱 내놓더니 ‘이거 먹어라’ 하는 거예요. 그래 펴보니까 영양빵이에요. 예. 사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‘같이 먹자’ 이러니까 ‘나는 낮에 밥 묵은 게 조금

좀 체기가 있는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, 속이 좀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혼자 먹어라.’ 제가 조금 둔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한 박자가 느려요, 제가.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. 먹고 인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거기서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. 학생 뭐 고등학교 삼(3)학년이예요. 인생에 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? 뭘 알겠습니까? 인생철학에 관해서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,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,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공부하는 거보다는. 그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.

그러다가 인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인자 교실에 들어올 때 나는 내 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앉는데 연거푸. 그때 그 학교 보면 그 다섯 되짜리 주전자가 있었어요. 알미눔이 아니고 그 무슨 색깔일까 황색갈 종류일까, 그런게. 옛날에는 다 주전자가 그랬습니다. 당번이 있어가지고 늘 거기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. 컵은 이런 그때 내가 알기로 사기 컵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툭바리(툭배기)처럼 이렇게 손잡이도 없고 밋밋한 겁니다. 상당히 커요. 연거푸 두 잔을 째악 들이키고 오는 거예요. 물먹으면서 ‘한 놈이라도 배가 불러야지.’ 그때서 제가 알았습니다. ‘한 놈이라도 배가 불러야지.’ 제가 한 박자가 느리다는 겁니다, 그게.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? 가난한 거 뻔히 알면서 오늘 분명히 변또(도시락)도 안 싸웠을 것이다, 도시락을 싸오지 아니했을 것이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‘점심 먹은 것이 체기가 있어서 좀 더부룩하다’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였을까. 내가 바보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냐, 갈등이 온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음. 저 친구는 앞으로 뭐가 되도 크게 될 친구다, 보통적인 내하고는 좀 다르다. 생각하는 게,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

#### 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47. 경남 함양 출생

1966.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.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알고 있었던 노 대통령을 호기심에 담배 피우는 과정에서 첫

대면했다고 한다. 졸업 이후 사법시험 준비기나 군대 시절에도 서로 소식을 전하며 친분을 유지했다. 정치 입문 이후에는 친구로서 선거운동을 도왔다.